

경제

# 전남 건설사 수주 2년새 40% 급감

## 2008년 9조서 작년 5조5천억으로 줄어

### 주택경기 침체·대형 업체 경영난 '직격탄'

지난해 전남지역 건설업체의 수주 실적이 5조5717억원으로, 최근 2년 사이에 수주가 40%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대한건설협회 전남도회가 회원사를 대상으로 2010년도 실적보고를 마감한 결과, 회원 업체 613개사가 수주한 공사 금액은 5조5717억원으로 2009년 8조6815억원, 2008년 9조3083억원보다 각각 35.8%, 40.1% 대폭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업종별로는 토목분야가 2조5456억원으로 전년도의 3조4632억원보다 26.5% 감소했다. 건축분야는 2조

5736억원으로 전년도의 4조6090억원보다 44.2% 줄었고, 지난 2008년(5조9166억원)과 비교하면 절반(43%)에도 못미쳐 최악의 주택경기 침체를 보여주고 있다.

산업환경설비분야는 2666억원, 조경은 1867억원으로 전년도보다 각각 11.5%와 49.8%의 감소율을 보였다.

회원 업체의 평균 수주액은 90억 9000만원으로 전년도의 141억6000만원보다 50억7000만원(35.8%)이나 감소했다.

이처럼 지난해 수주액이 크게 감소

한 것은 전남지역 일부 대형 건설업체들이 잇따라 워크아웃과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등 경영활동 위축된데다 부동산 경기침체로 주택 및 비주거용 건축사업 부진, 기존 발주공사 투입 비중 증가에 따른 신규사업 발주 감소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업체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여전했다.

평균 금액 미만을 수주한 회사가 541개사로 전체 회원사의 85.1%를 차지했다. 특히 수주실적이 없거나 실적신고를 하지 못한 회원사가 전년 27개사(4.4%)에서 지난해 45개사(7.1%)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반면 전남지역 건설업체 실적 1위인 금호산업(주)은 1조2164억원을 수주해 전체 실적의 21.8%를 차지했다. 이어 호반건설이 2645억원으로 2위를 기록했다. 하지만 이들 업체도

전년도(금호산업 1조4954억원, 호반건설 7852억원)와 비교하면 각각 2790억원과 5207억원 줄어든 금액이다.

상위 5위권에 들던 남양건설과 금광기업, 대주건설은 법정관리와 부도 등으로 지난해 수주가 급감했다. 호반건설·우미건설 등 주택건설업체들도 주택건설경기 침체가 3년째 이어지면서 수주액이 크게 줄었다.

건설협회 전남도회 관계자는 "지역 대형건설사의 경우 대부분이 주택건설업체로, 3년째 지속된 주택경기 침체가 수주 부진의 직격탄"이라며 "지역 건설업체 '톱10'의 수주 감소액이 전체의 84%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아 주택경기 부양정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김동선(오른쪽) 중소기업청장이 지난 18일 오후 광주시 서구 양동시장을 방문해 상인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전통시장 정부 인증 포장지 개발”

### 양동시장 온 김동선 중기청장 밝혀...야시장 개설 건의

광주 양동시장 등 전국의 문화관광형시장에서 공동 사용하는 정부 인증 전통시장 포장지가 개발될 것으로 보인다.

김동선 중소기업청장은 지난 18일 오후 광주 양동시장에서 열린 시장상인들과 간담회에서 “정부가 지정한 문화관광형시장에서 판매하는 상품에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전통시장의 맛과 멋이 담긴 문화관광형시장 포장 디자인을 개발하라”고 지시했다. 정부의 인증마크가 새겨진 포장지가 개발되면 전통시장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청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문화

가 숨쉬고 향유하는 양동시장같은 전통시장은 흔하지 않다”며 “이를 모델로 전국으로 확산하면 한다”고 상인들을 격려했다.

김 청장은 또 “젊은이들이 전통시장에 끌려들어야 미래가 있다”며 “대학 축제와 연계하고, 대학생들이 즐길 수 있는 젊은 문화공간 제공해 자연스럽게 전통시장을 찾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김청호 양동시장상인 연합회장은 “동남아·중국·일본 등 주요 아시아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야시장을 광주 양동시장에도 개설하겠다”며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김 회장은 “광주시·광주시관광협회와 야시장 개설을 구체적으로 논의 중”이라며 “오는 6월이면 야시장을 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양동시장 야시장은 금요일 또는 주말에 개설될 예정이며, 먹거리와 볼거리·즐거거리·살거리를 풍성하게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의류와 화장품 구매력이 좋은 중국 관광객들의 호응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전통시장을 지원하는 사회책임인 ‘광주 전통시장 문화경영센터’ 설립도 추진 중이다. 김 회장은 또 광주 디자인비엔날레 연계 사업 지원과 외국인 관광객 전문 소품센터 지정 등을 건의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기아 ‘정차시 엔진정지’ 포르테 시판

기아자동차는 21일부터 대표 준중형 세단 포르테 GDI에 국내 처음으로 자동변속기용 ‘고급형 ISG(Idle Stop & Go) 시스템’을 탑재한 ‘포르테 에코 플러스(ECO PLUS·사선)’를 본격 시판한다고 20일 밝혔다.

‘고급형 ISG 시스템’은 정차 중에는 엔진 가동을 정지시키고 출발하면 자동으로 시동이 걸리도록 하는 공회전 제한 시스템이다. 기어 조작 없이도 정지 신호 등을 받아 브레이크를 밟으면 엔진 가동이 끊기고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면 엔진이 자동으로 재가동되도록 해 운전 편의성을 높였다.



이를 통해 기존 차량보다 6.1% 향상된 17.5km(자동변속기 기준)의 경차 수준으로 연비를 크게 개선했다. 가다 서기를 반복하는 혼잡한 도심에서는 30% 수준까지 연비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2개 모델로 ‘디럭스 ECO PLUS’는 1600만원, ‘럭셔리 ECO PLUS’는 1790만원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삼성 ‘스마트 전자동 세탁기’ 출시

삼성전자는 20일 세탁력과 사용편의성을 높인 스마트 전자동 세탁기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광주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이 제품은 ‘매직 솔루션’ 기술로 세탁도 위생 관리와 옷감 보호 기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매직 솔루션 기능은 세계최초의 4개 면을 돌리던 48개의 매직홀에서 물살을 골고루 내보냄으로써 세제가 잘 풀이되게 하고 세제 찌꺼기가 옷에 묻어 얼룩이 지는 것을 막아준다고 삼성전자는 설명했다. 13kg·14kg·15kg 3개 모델로, 출고가는 70만~84만원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될성 부른 中企’ 글로벌 기업 육성

### 지경부 참여업체 모집...23~28일 사업 설명회

지식경제부는 잠재력이 있는 중소·중견기업을 세계적 기업으로 육성하는 ‘월드 클래스 300’ 프로젝트를 추진하고자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 미래 성장동력을 갖춘 중소기업에 자금과 컨설팅을 지원

해 기술과 인력을 확보하고 해외시장을 개척함으로써 세계적인 전문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게 돕는 것이다.

2020년까지 300개 기업을 선정해 육성하는 것이 목표이며 첫째인 올해 30개 기업을 우선 선정한다.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코트라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산업기술연구회 등 12개 기관이 연계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을 패키지로 제공한다.

신청할 수 있는 기업은 매출액을 기준으로 제조업은 400억~1조원,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은 100억~1조원인 반면 최근 3년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투자 비율이 2% 이상 되는 등 성장 역량을 인정받아야 한다.

지경부는 23~28일 대구와 광주, 대전 등지에서 사업 설명회를 하고 내달 31일까지 신청을 받아 4월 말까지 선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당첨번호		2등번호사	
3	23 28 34 39 42	16	
등 위	당첨금액(원)	당첨자수	
1	6개 숫자 일치	1,485,904,709	9
2	5개 숫자+번호사 일치	60,239,381	37
3	5개 숫자 일치	1,604,649	1,389
4	4개 숫자 일치	50,000	68,256
5	3개 숫자 일치	5,000	1,150,652

## “기업 상생협력 여건 조성 주력”

### 권영익 공영위 광주사무장



“법률적 잣대보다는 기업 스스로 상생협력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에 주력하겠습니다.”

최근 취임한 권영익(55) 공영위 대위원 위 광주사무장은 “다리로 말하면 대기업은 상관, 중소기업은 교각과 같다. 중소기업이 건설해야 다리로서의 역할이 가능하다”며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을 강조했다. 또 민생권익을 침해하는 답답행위 근절과 소비자 불만이 몰려서 피해보는 일이 없

도록 소비자 정보 제공에도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권 선임 소장은 경남 산청 출신으로 부산 동의과학대 전자과를 졸업했다. 경제기획원 산업경제과·물가총괄과를 거쳐 공정거래위원회 업무지원팀장·대전사무소장을 역임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젓물 가스로 에탄올 생산

### 포스코, 美사와 기술 협력

포스코가 국내 최초로 젓물을 생산하는 공장에서 발생하는 가스로 에탄올을 생산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포스코는 지난 18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미국의 신재생에너지 전문 기업인 란자텍(LanzaTech)사와 기술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두 회사는 철강 제조 공정에서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가스를 미생물로 발효시켜 에탄올로 만드는 원천 기술을 상용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에탄올을 생산 사업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제철소 인근에 생산 설비를 건설해 에탄올을 생산, 판매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전복구이 전문점 전복장터**

전복장터를 찾아주시는 고객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청정해역 완도바다에서 직영 양식장을 운영하여 매일 싱싱한 전복을 고객님의게 올릴 수 있음을 무한한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고객님의 한분한분이 최상의 만족을 느낄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양식장 직영 도·소매 | 활전복 전국 택배 가능 합니다. | 모든 메뉴 포장 됩니다. | 각종모임 환영, 룸 9실, 대형주차장 완비

주소: 일곡지구 연초제조창 500번지 SK주유소 1층

전화: 062-576-8600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동 367-12

**아이에ल्ली시아**

고품격 메뉴, 건강한 맛, 품격있는 서비스 (500석 완비)

- ◆ 홀 : 연인, 친구, 가족(2인석, 4인석, 6인석)
- ◆ 소모임(룸) : 직장회식, 계모임(9인석, 12인석, 24인석, 32인석)
- ◆ 대모임(룸) : 돌잔치, 칠순연, 피로연, 세미나(52인석, 92인석, 150인석)

아이부터 어른까지 3대가 만족하는 즉석 프리미엄 뷔페 아이ल्ली시아! 고객님의 소중한 추억과 맛있는 행복을 약속합니다.

편 일	영업 시간	성인 (중학생이상)	취학어린이 (초등학교)	미취학어린이 (5세-7세)	토·일 공휴일	영업 시간	성인 (중학생이상)	취학어린이 (초등학교)	미취학어린이 (5세-7세)
LUNCH	11:30-15:00	22,000원	12,000원	8,000원	LUNCH	11:30-15:00	27,000원	15,000원	10,000원
DINNER	16:00-22:00	27,000원	15,000원	10,000원	DINNER	16:00-22:00	31,000원	18,000원	12,000원

★ 어린이 요금은 의료보험증 등을 지참하시어 할인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약문의: 062)671-1199

주소: 유스퀘어 터미널 2층 CGV 옆